

## 부모의 자기자비, 자기냉담이 학령기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결혼만족과 온정·수용 양육행동의 순차매개효과

Received: January 15, 2025  
Revised: March 05, 2025  
Accepted: March 06, 2025

홍선표<sup>1</sup>, 한세영<sup>2</sup>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석사과정 졸업생<sup>1</sup>,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sup>2</sup>

교신저자: 한세영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학과  
(0736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E-MAIL:  
evenhow@ewha.ac.kr

### Effects of Parents' Self-Compassion and Self-Coldness on Children's Problematic Behavior: The Sequential Mediation of Marital Satisfaction and Warm and Accepting Parenting Behavior

Seon-Pyo Hong<sup>1</sup>, Sae-Young Han<sup>2</sup>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al & Intervention, Ewha Womans University/ Master's Degree<sup>1</sup>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al & Intervention,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sup>2</sup>

#### ABSTRACT

본 연구는 부모의 자기자비와 자기냉담, 결혼만족, 온정·수용 양육행동이 학령기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4-6학년 자녀를 둔 기혼 남녀 336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자기자비와 자기냉담이 결혼만족을 통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부모의 자기자비만 온정·수용 양육행동을 통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부분매개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셋째, 부모의 자기자비, 자기냉담과 아동의 문제행동간 관계에서 결혼만족과 온정·수용 양육행동의 순차매개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부모의 개인내적 특성인 자기자비를 자기냉담과 구분하여 가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전반적으로 살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는 자기자비를 기반으로 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이론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부모의 자기자비, 자기냉담, 결혼만족, 온정·수용 양육행동, 아동의 문제행동, 아동발달



© Copyright 2025,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초등학교 입학부터 청소년기 진입 전 시기인 학령기의 아동들은 학교에서의 교우관계 혹은 교사와 또래의 피드백, 학업 성취 등을 통해 자기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나간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발생하는 문제행동은 교사, 또래, 부모로부터의 지속적인 부정적 피드백을 유발하며, 이는 아동 내면의 부정적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학령기 후기는 청소년기 진입을 앞두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학령기의 문제행동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청소년기 비행, 약물 사용, 학교 폭력 등과 같은 심각한 반사회적 문제행동으로 발달하거나, 혹은 문제가 만성화되면 성인기 이후 다양한 영역에서 부적응 문제들을 유발할 수 있다(김선희, 김경연, 2001; 박금진, 2019; 백혜정, 황혜정, 2006; Moilanen et al., 2010). 따라서 학령기 문제행동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적절한 예방과 조기개입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족체계 이론에 따르면, 아동의 문제행동은 단순히 아동의 특성만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 아닌 가족 구성원들 간 관계와 역동이 더해져 생긴 산물이다. 특히 아동의 문제행동은 부모와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문제행동의 원인을 살펴볼 때에는 부모-자녀간의 관계를 결정짓는 부모의 특성과 행동에 대해서도 함께 탐색할 필요가 있다.

Belsky의 양육행동 결정요인 모델(1984)은 부모의 양육행동이 부모 내면의 요인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설명한다. 부모의 개인적 특성은 양육행동을 직접적으로 결정하기도 하고, 부부관계와 같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양육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리고 부모 개인의 특성으로부터 출발한 부부관계, 양육행동, 부모-자녀관계는 궁극적으로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부모의

특성은 아동의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역기능적 가정 환경을 형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문제행동을 연구할 때에는 부모의 특성을 가장 먼저 고려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사회학습 이론은 역기능적 부부관계와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핵심 원인으로 부모의 인내심과 관용의 결핍을 지적했다(Krishnakumar & Buehler, 2000). 조급하고 낮은 인내심을 가진 부모는 자녀의 실수에 대해서 너그럽이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부 간에도 갈등을 쉽게 빚는다. 잦은 부부갈등은 결혼 불만족과 같은 부모의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며, 이는 부모의 관용을 더 낮추어 자녀에게 더 예민하고 처벌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관용의 결핍은 부부관계의 악화를 유발하고 양육행동에도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자녀의 문제행동을 발생시키는데 기여한다.

자기자비는 이런 부모의 무관용과 인내심 결핍으로 인한 가정 내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 자기자비는 불교심리학의 ‘자비’로부터 파생된 개념으로, 개인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거나 실패를 경험할 때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자신의 불완전함을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한계를 수용하고, 스스로를 돌보고 격려하며 자신의 부정적인 부분을 마음챙김의 자세로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한다(Neff & Beretvas, 2013). 따라서 자기자비는 부모가 가정에서 힘든 상황에 마주하였을 때, 스스로를 돌봄으로써 현재 경험하고 있는 부정적 정서를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다(Cohen, E., & Naaman, E. R., 2023). 뿐만 아니라 자기자비가 높은 사람은 타인에게도 자비적 태도를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김미희, 2021; 이호

준, 2018). 그러므로 자기자비가 높은 부모는 배우자 혹은 자녀의 불만족스러운 특성에 대해서도 자비롭게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으며, 부부관계 갈등이나 자녀의 실수에 대해서도 관대하게 대응할 수 있다.

Neff(2003b)는 자기자비를 구성하는 6개의 하위 요인인 자기친절과 자기판단, 보편적 인간성과 고립, 마음챙김과 과잉동일시가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후속연구를 통해 이러한 구분법이 자기자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의견들이 대두되었고, López 등(2015)과 Costa 등(2016)은 자기자비를 긍정적 요인(자기친절, 보편적 인간성, 마음챙김)과 부정적 요인(자기판단, 고립, 과잉동일시)의 2요인 모형으로 재구성하였다. Brenner 등(2017)은 자기자비의 긍정적 요인을 '자기자비'로, 부정적 요인을 '자기냉담'으로 명명하였으며 연구를 통해 자기자비와 자기냉담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내 연구 결과에서도 자기자비·자기냉담 일반요인 2개와 하위 6개 영역 특성요인으로 구성되는 Second-order 모형이 자기자비를 가장 적합하게 설명하였으며 자기자비와 자기냉담이 각각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박한솔 등, 20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부모의 개인내적 요인인 자기자비를 자기자비와 자기냉담으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요인이 부부관계와 양육행동을 통해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부모 내면의 요소인 자기자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부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로는 결혼만족이 있다. 결혼만족은 결혼생활에서 경험하는 것들의 주관적인 만족감에 대해서 평가한 것으로, 자신이 가진 여러 기대가 실제 결혼생활에서 얼마나

부합되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김의진, 2014; 양영미, 2016). 이는 결혼생활에 대한 평가가 개인의 주관적인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기자비는 배우자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닌 배우자에 대한 자신의 시각과 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관계의 만족도를 증가시킨다(이은지, 서영석, 2014; Die Wang et al., 2022). 자기자비가 높은 부모는 배우자 또한 자신처럼 완벽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결점에 대해서도 자비를 가지고 수용하는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김미희, 2021; 이호준, 2018). 반면 자기자비가 낮을수록 자신에게 대하는 엄격한 기준을 상대방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자기자비가 낮은 부모는 배우자의 결점 혹은 실수에 대해 너그럽게 받아들이지 못해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족감을 경험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자기자비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적극적인 갈등해결 전략과도 관련되어있다. 자기자비가 높을수록 조망수용능력이 높아 결혼생활 중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배우자의 관점에서 상황을 보고, 분노를 조절하여 배우자와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변지영, 양혜정, 2018). 그러므로 자기자비가 높은 부모는 부부관계에서도 높은 만족도를 느끼게 된다. 반면 자기자비가 낮을수록 갈등 상황에서 비난, 경멸, 방어 등과 같은 역기능적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하고, 폭력적으로 행동하거나 혹은 갈등을 회피하고 침묵해버리는 등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성향을 보인다(변지영, 양혜정, 2018; 홍지희, 김보영, 2021). 게다가 자기냉담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사건과 그 때 자신의 감정에 대해 반추하기 더 쉽다(Kachadourian et al., 2005). 그러므로 자기자비가 낮을수록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감도 낮아지게

된다.

부모의 자기자비는 부모의 행동적 측면인 양육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양육행동은 부모가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전형적인 행동이나 특성을 의미한다(Darling & Steinberg, 1993). 부모의 양육행동은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결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이원영, 1983), 아동의 문제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행동도 중요하게 살펴봐야 한다.

기존 연구는 주로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아동의 문제행동을 연구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 또한 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높여 문제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들을 완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한다. 부모의 강압적이고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통제하여도 긍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문제행동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선행연구 결과는 아동의 문제행동을 연구할 때 긍정적 양육행동 또한 중요하게 보아야 함을 시사한다(Trentacost et al.,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행동 중 긍정적 양육행동을 측정한 온정·수용 양육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행하는 태도, 방식을 타인에게 유사하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Rogers, 1951; Digiulio, 1988), 부모가 자녀를 온정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수용하는 자세가 선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어려운 순간에도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고 온전히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자비가 높은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도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행동을 더 많이 보일 수 있는 반면, ‘자신의 한계점을 수용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자신에게 엄격한’ 자기냉담적 특성이 높은 부모는 수용적 양육행동을 덜 나타낼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기자비가 높은 부모는 아동을 양육할 때 겪을 수 있는 어려운 순간들에서도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조절해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더 온정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고(Bogels et al., 2010; Cohen, E., & Naaman, E. R., 2023; Sirois et al., 2019; Neff & Faso, 2015), 현재의 순간에서 아동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과의 관계에서 차분하고 일관적인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다(Gouveia et al., 2016). 반면 자기냉담이 높은 부모는 양육 중 어려운 순간에 마주했을 때 부정적 사건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자신의 부정적 감정에 사로잡혀 정작 아동의 정서와 행동에는 집중하고 수용하며 민감하게 반응하기 어려웠다(Moreiara & Canavarro, 2018).

부모의 자기자비는 궁극적으로 아동의 문제행동 발생과 관련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기자비가 높은 어머니는 양육을 하면서 행복한 감정을 더 높게 느낀 반면 슬픔, 불안, 화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덜 경험하였고 이는 아동의 외현화, 내현화 문제행동 모두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Cohen & Naaman, 2022). 또한 Edwards(2017)의 연구에서는 자기자비가 불안애착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는데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아동의 적응적 발달을 도왔음을 밝혀내었다. 국내에서는 김형연(2021)의 연구를 통해 어머니의 자기자비가 마음챙김 양육을 통해 양육스트레스를 낮춤으로써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을 증가시켜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부모의 자기자비는 아동의 문제행동 발생을 낮추고 적응적 발달을 돕는 요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자기자비는 인지적으

로 상황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만족감을 얻는 것으로, 성인 이후에도 개입과 훈련을 통해 유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이은지, 서영석, 2014). 그러므로 부모의 자기자비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은 역기능적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의 문제행동을 다룰 때 부모에게 개입할 수 있는 적용점을 찾는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부모의 자기자비와 아동의 문제행동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자기자비, 자기냉담과 아동의 문제행동 간 직접경로를 제거한 연구모형과 직접경로를 연결한 경쟁모형을 설정하여 두 모형을 비교함으로써 자기자비, 자기냉담과 아동의 문제행동 간 관계에서의 매커니즘을 더 명확히 밝히고자 하였다.

부모의 결혼만족과 양육행동과의 관계는 많은 연구들을 토대로 보았을 때 대체적으로 부모가 결혼생활에서 느끼는 감정이 양육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전이가설로 설명된다(김혜원, 유성경, 2017; 서고운, 2017; 채영문, 곽수진, 2017; 이은정, 김영희, 반평자, 2022; 홍현정, 신나나, 2024; Gerard et al., 2006; Greenlee et al., 2022; Krishnakumar & Buehler, 2000; Pedro et al., 2012). 부모가 경험하는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가정 내에 온정적이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으며 가족의 안정성과 응집력을 유지할 수 있다(Anthony, 2007; Feldman et al., 1990; Margolin et al., 1996). 반면, 결혼생활이 불만족스러울수록 잦은 부부갈등이 유발되며 가정 내 불안정하고 위협적인 분위기가 형성된다(Bertoni & Bodenmann, 2010; Fishman & Meyers, 2000; Krishnakumar & Buehler, 2000). 부부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부모의 분노는

아동에게로도 직접적으로 향함으로써 아동을 신체적, 심리적으로 위협하는 양육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Erel and Burman, 1995; Krishnakumar and Buehler, 2000).

부모의 결혼만족은 아동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아동이 부부갈등을 지각할 때 원인을 아동 자신 때문이라고 오귀인하거나, 이혼, 별거 등에 대한 불안감을 느낌으로써 아동의 내적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다(권영옥, 이정덕, 1997). 뿐만 아니라 결혼 불만족으로 인한 부부의 잦은 갈등에 노출된 자녀는 긍정적인 갈등 해결방법을 모델링하지 못해 학교 등과 같은 곳에서 타인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Bandura, 1965). 이처럼 부모의 결혼 불만족은 부부갈등을 유발함으로써 아동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부부관계에서 발생한 부정적인 감정이 아동에게 전이됨으로써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저해하여 부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유발하는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아동의 문제행동 발생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Erel & Burman, 1995).

종합하면 부모의 자기자비는 결혼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고,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행동을 더 많이 하도록 하여 아동의 문제행동의 발생을 낮출 것이다. 반면 부모의 자기냉담은 부모의 결혼에 대한 만족감을 낮추고, 아동을 향한 온정·수용 양육행동을 덜 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아동의 문제행동의 발생을 증가시킬 것이다. 사회학습 이론에 따르면 역기능적 부부관계와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핵심 원인은 부모의 인내심과 관용의 결핍이다(Krishnakumar & Buehler, 2000). 그리고 자기자비는 부모가 가정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고난의 순간에서도 부모가 인지적으로 자신을 조절하여 적

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자기자비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무관용의 문제를 완화시킴으로써 부모가 건강한 가정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근본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부모 개인의 자기자비 증진을 통해 가족 내 역기능적 문제를 정상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현재 부모의 자기자비가 결혼만족과 양육행동을 통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의 자기자비가 가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해하기 위해, 아동의 문제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구체적인 기제를 살펴보려고 한다.

연구모형과 연구 문제는 그림 1, 그림 2와 같다.

**연구 문제 1.** 부모의 자기자비, 자기냉담과 결혼만족, 온정·수용 양육행동, 아동의 문제행동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 문제 2.** 부모의 자기자비, 자기냉담과 결혼만족, 온정·수용 양육행동은 아동의 문제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1. 부모의 자기자비와 자기냉담과 아동의 문제행동간의 관계를 결혼만족이 매개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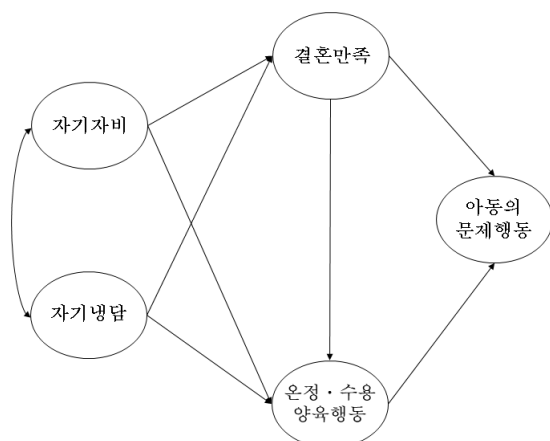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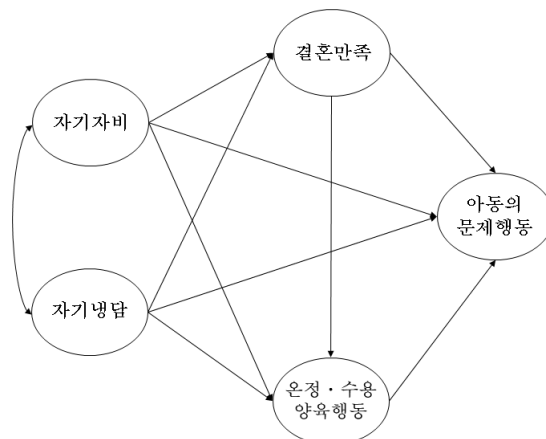


그림 2. 대안모형

**2-2. 부모의 자기자비와 자기냉담과 아동의 문제행동간 관계를 온정·수용 양육행동이 매개하는가?**

**2-3. 부모의 자기자비, 자기냉담과 아동의 문제행동 간 관계를 결혼만족과 온정·수용 양육행동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가?**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1년 1월 한 달 동안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기혼 남녀 33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자는 초등학교 부모가 자주 방문하는 주제의 온라인 카페들에 온라인 설문지 링크로 연결되는 게시글을 올려 무작위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참가자를 모집하였으며, 설문지를 배포할 때 연구 참가에 대한 안내문을 게재하여 본 연구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링크를 통해 참여자들이 연구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부모의 결혼만족

이 연구의 주요 요인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이혼, 사별 등의 사유로 현재 결혼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 139명(41.4%), 여성 197명(58.6%)으로 여성 참여자가 더 많았다. 연령은 평균 연령은 41.17세( $SD=4.03$ )로, 40세 ~ 44세(154명, 45.8%)의 참여율이 가장 높았다. 대상자의 교육 수준은 4년제 대학 졸업자가 268명(79.8%)으로 가장 많았으며, 배우자의 교육수준 또한 4년제 대학 졸업자가 가장 많았다(276명, 82.1%). 자녀의 성별은 남 179명(53.3%), 여 157명(46.7%)이었고, 학년 구성은 4학년 149명(44.3%), 5학년 142명(42.3%), 6학년 45명(13.4%)으로 나타났다.

## 연구도구

### 자기자비

부모의 자기자비는 Neff(2003a)가 개발하고 김경의 등이 번안한 한국판 자기자비 척도(Korean Self-Compassion Scale)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총 26개의 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자기친절과 자기판단, 보편적 인간성과 고립, 마음챙김과 과잉동일시의 상반되는 6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후속 연구들에서 자기자비 척도 내 요인들이 상반된 것이 아닌 서로 별개의 개념을 측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박한솔, 김은하, 신희천, 2020; Brenner et al, 2017; Costa et al, 2016; López et al. 2015; Muris & Petrocchi,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한국판 자기자비 척도를 자기자비(자기친절, 보편적 인간성, 마음챙김)와 자기

냉담(자기판단, 고립, 과잉동일시)으로 구별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역채점 없이 각 변인을 모두 총점으로 측정하였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자기자비와 자기냉담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기자비 문항의 예시로는 '나는 마음이 아플 때, 내 자신을 사랑하려고 애쓴다.'가 있고, 자기냉담 문항의 예시로는 '나는 내 자신의 결점과 부족한 부분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비난하는 편이다.'가 있다. 자기자비의 각 하위요인 별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자기친절 .74, 보편적 인간성, .67, 마음챙김 .72, 총 자기자비 .85이었으며, 자기냉담의 각 하위요인 별 내적합치도는 자기판단 .83, 고립 .76, 과잉동일시 .76, 총 자기냉담 .91으로 나타났다.

### 결혼만족

부모의 결혼만족은 Snyder(1979)가 개발한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MSI)를 권정혜, 채규만이 번안한 것을 임희수(2013)가 수정·보완한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총 24개의 문항으로 4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되었으며 전반적인 결혼만족도, 문제해결 의사소통, 자녀양육 갈등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결혼생활에 만족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결혼만족 문항의 예시로는 '나는 우리의 결혼생활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가 있다. 결혼만족의 각 하위요인 별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전반적인 결혼만족도 .87, 문제해결 의사소통 .82, 자녀양육 갈등 .82, 총 결혼만족 .94였다.

### 온정·수용 양육행동

부모의 온정·수용 양육행동은 Schaefer(1959)

가 제안한 양육행동 개념모형을 기초로 박영애(1995)가 제작한 '양육행동' 척도를 김문정(2003)이 재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온정·수용 양육행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기에 김문정 척도의 하위요인 중 '온정·수용(예: 아이를 기쁘게 해 줄 일들을 잘 생각해 낸다.)' 요인에 관련된 문항만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기존 척도의 일부분을 차용하였기 때문에, 안정적인 분석을 위해 문항꾸러미 방식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진행하였다. 온정·수용 양육행동은 총 10개의 문항으로 4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보임을 의미한다. 온정·수용 양육행동 문항의 예시로는 '아이를 기쁘게 해 줄 일들을 잘 생각해 낸다.'가 있으며,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85였다.

### 아동의 문제행동

아동의 문제행동은 Achenbach(1978)이 제작하고 오경자 등(1997)이 타당화 한 한국판 아동·청소년 행동평가 척도(Korean Child Behavior Checklist)를 박철웅(2002)이 재구성한 척도 중에서 외현화 문제에 해당하는 비행, 공격성과 내현화 문제에 해당하는 위축, 우울·불안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32개의 문항으로 3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문제행동을 많이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의 문제행동을 측정한 문항의 예시로는 '남을 괴롭히고 못살게 군다.'가 있으며, 문제행동의 각 하위요인 별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비행 .81, 공격성 .92, 위축 .84, 우울·불안 .80, 총 문제행동 .96였다.

### 문항꾸러미 제작

양육행동 척도에서 '온정·수용'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단일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추정오차와 전반적인 모델 적합도 지수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MacCallum et al., 1999), 추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례 수에 대한 측정치 비율을 낮춰 요인 간 관계 구조를 검증하는 문항꾸러미 방법을 사용하였다(Kishton & Widaman, 1994).

문항꾸러미 제작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양육행동 척도의 '온정·수용'을 최대우도법을 사용해서 1요인을 가정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다음, 요인부하량의 절대값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 절대값이 가장 높은 문항과 낮은 문항을 순차적으로 묶는 방식으로 잠재변인과 유사한 수준의 부하량을 가진 2개의 문항꾸러미를 생성하였다.

문항꾸러미의 개수와 관련하여 모형적합도와 추정치편향성의 이슈를 고려해 Little 등(2013)과 Matsunaga(2008)는 요인 당 세 개의 문항꾸러미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적절한 문항꾸러미의 개수는 연구모형, 표본크기, 자료의 분포 특성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를 무조건 세 개로 단정 짓기는 어려우므로 이지현, 김수영(2016)은 만약 개별문항의 개수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요인 당 두 개의 문항꾸러미도 가능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항의 개수를 고려하여 두개의 문항꾸러미로 분석하였다.

### 연구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20년 12월 30일부터 2021년 1월 28일까지 30일간 온라인 설문지 사이트를 사용하여 진행되었다.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자기자비, 결혼만족, 온정·수용 양육행동 및 아동

의 문제행동 척도로 구성된 설문지를 온라인으로 배포하였으며, 연구 윤리 규정에 따라 설문지 내에 연구의 목적, 비밀 보장을 고지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 및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대상자들에 한해서만 연구를 진행하였다. 총 350명의 자료가 수집되었고, 그 중 응답이 불성실한 14명의 자료를 제외한 336명의 설문을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1.0과 AMOS 21.0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배경을 살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조사 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alpha$  값을 산출하였다. 셋째, 각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넷째, 연구모형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기 전 측정

변인들이 잠재변인들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연구가설 검증을 위해 부모의 자기자비, 자기냉담과 결혼만족, 온정·수용 양육행동, 아동의 문제행동 간 경로를 설정하여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structural equation analysis)을 진행했다. 자기자비와 자기냉담, 아동의 문제행동 간 경로를 제거한 모형을 연구모형, 경로를 설정한 모형을 경쟁 모형으로 설정하여 모델비교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채택된 경쟁모형을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최종모형에서 발생한 간접효과는 팬텀변인을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 결 과

###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의 주요 연구변인에 대한 기술통계와 변인 간 상관계수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주요변인들

표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               | 1     | 2      | 3      | 4      | 5    |
|---------------|-------|--------|--------|--------|------|
| 1. 부모의 자기자비   | -     |        |        |        |      |
| 2. 부모의 자기냉담   | .09   | -      |        |        |      |
| 3. 결혼만족       | .31** | -.50** | -      |        |      |
| 4. 온정·수용 양육행동 | .31** | -.33** | .62**  | -      |      |
| 5. 아동의 문제행동   | .07   | .48**  | -.42** | -.39** | -    |
| 평균            | 3.27  | 3.02   | 2.93   | 3.01   | 0.38 |
| 표준편차          | 0.59  | 0.77   | 0.59   | 0.51   | 0.50 |
| 왜도            | .04   | -.72   | .61    | -.39   | .62  |
| 첨도            | 1.11  | .30    | .25    | .52    | -.74 |

\*\* $p < .01$ .

이 정규성 가정의 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모든 왜도와 첨도가  $\pm 2$  범위에 포함되어 정규성이 확보된다고 판단하였다(George & Mallery, 2016).

그 다음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해 주요 잠재변인 간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부모의 자기자비는 결혼만족( $r = .31, p < .01$ ), 온정·수용 양육행동( $r = .31, p < .01$ )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부모의 자기냉담,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부모의 자기냉담은 결혼만족( $r = -.50, p < .01$ ), 온정·수용 양육행동( $r = -.33, p < .01$ )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아동의 문제행동( $r = .48, p < .01$ )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 측정모형 검증

구조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본 연구의 연구변인에 해당하는 부모의 자기자비, 자기냉담, 결혼만족, 온정·수용 양육행동 및 아동의 문제행동을 측정하는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들을 잘 측정하였는지 살펴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 = 243.88(df = 80, p < .001)$ ,  $\chi^2/df = 3.05$ , GFI = .91, NFI = .93, TLI = .94, CFI = .95, RMSEA = .08(90% CI = .07 ~ .09)으로, 수용 가능한 기준을 충족하여 본 모형은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Steiger, 1990; 홍세희, 2000). 그 다음, 잠재변인에서 측정변인으로서의 요인부하량은 자기자비 .70 ~ .83, 자기냉담 .84 ~ .87, 결혼만족 .84 ~ .86, 온정·수용 양육행동 .86 ~ .86, 아동의 문제행동 .84 ~ .91으로 .40 이상이어서 모든 측정변인이 적절한 수준에서 잠재변인의 개념을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표 2 참조).

## 구조모형 검증

부모의 자기자비 및 자기냉담, 결혼만족, 온정·수용 양육행동, 아동의 문제행동 간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제시한 대안모형 간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연구모형과 대안모형 중 더 적합한 모형을 판별하기 위해  $\chi^2$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을 때,  $\chi^2(2) = 50.14$ 으로 유의수준 .05에서 두 모형 간

표 2. 측정모형 적합도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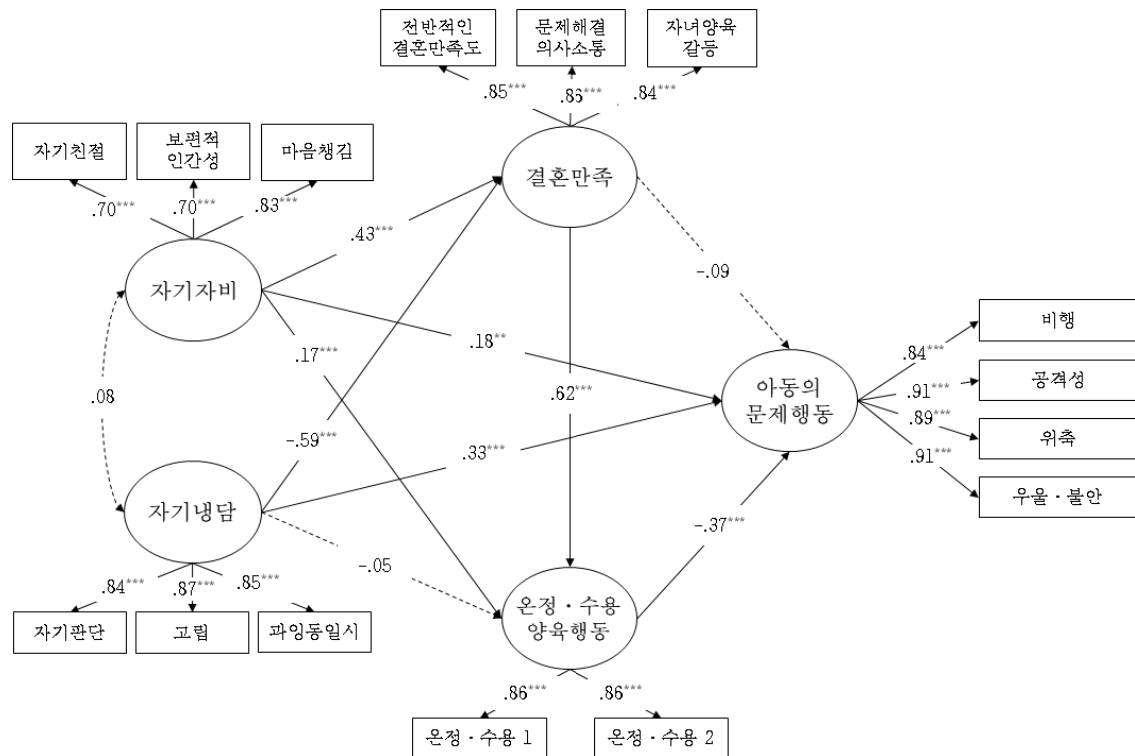
| 적합도  | $\chi^2$  | df | $\chi^2/df$ | GFI | NFI | TLI | CFI | RMSEA[90% CI]  |
|------|-----------|----|-------------|-----|-----|-----|-----|----------------|
| 측정모형 | 243.88*** | 80 | 3.05        | .91 | .93 | .94 | .95 | .08[.07 ~ .09] |

\*\*\* $p < .001$ .

표 3.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의 적합도 지수

| 적합도  | $\chi^2$  | df | $\chi^2/df$ | GFI | NFI | TLI | CFI | RMSEA[90% CI]  |
|------|-----------|----|-------------|-----|-----|-----|-----|----------------|
| 연구모형 | 294.02*** | 82 | 3.59        | .90 | .92 | .92 | .94 | .09[.08 ~ .10] |
| 대안모형 | 243.88*** | 80 | 3.05        | .91 | .93 | .94 | .95 | .08[.07 ~ .09] |

\*\*\* $p < .001$ .



\*\* $p < .01$ . \*\*\* $p < .001$ . 주. 제시된 수치는 표준화 추정치임.

그림 3. 부모의 자기자비, 자기냉담이 결혼만족 및 온정·수용 양육행동을 통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표 4.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 잠재변인 간 경로               | <i>B</i> |      | <i>S.E</i> | <i>C.R</i> |
|-------------------------|----------|------|------------|------------|
| 자기자비 → 결혼만족             | .45      | .44  | .06        | 7.49***    |
| 자기냉담 → 결혼만족             | -.48     | -.59 | .05        | -10.43***  |
| 자기자비 → 온정 · 수용 양육행동     | .14      | .17  | .05        | 2.64**     |
| 자기냉담 → 온정 · 수용 양육행동     | -.03     | -.04 | .05        | -.64       |
| 자기자비 → 아동의 문제행동         | .13      | .18  | .05        | 2.71**     |
| 자기냉담 → 아동의 문제행동         | .19      | .33  | .04        | 4.55***    |
| 결혼만족 → 온정 · 수용 양육행동     | .50      | .62  | .07        | 7.59***    |
| 결혼만족 → 아동의 문제행동         | -.06     | -.09 | .07        | -0.88      |
| 온정 · 수용 양육행동 → 아동의 문제행동 | -.32     | -.37 | .08        | -4.23***   |

\*\* $p < .01$ . \*\*\* $p < .001$ .

표 5. 패턴변인을 통한 다중매개 검정결과

| 경로                                  | <i>B</i> | 90% CI[하한, 상한] |
|-------------------------------------|----------|----------------|
| 자기자비 → 결혼만족 → 아동의 문제행동              | -.03     | [-.08, .02]    |
| 자기냉담 → 결혼만족 → 아동의 문제행동              | .03      | [-.02, .09]    |
| 자기자비 → 온정·수용 양육행동 → 아동의 문제행동        | -.05*    | [-.08, -.01]   |
| 자기냉담 → 온정·수용 양육행동 → 아동의 문제행동        | .01      | [-.01, .09]    |
| 자기자비 → 결혼만족 → 온정·수용 양육행동 → 아동의 문제행동 | -.07**   | [-.13, -.04]   |
| 자기냉담 → 결혼만족 → 온정·수용 양육행동 → 아동의 문제행동 | .08**    | [.05, .13]     |

\*\* $p < .01$ .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홍세희, 2012). 두 모형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더 복잡한 모형을 선택하는 것을 권장하므로(홍세희, 2009), 본 연구는 대안모형이 변인간 구조적 관계를 설명하는데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대안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 = 243.88(df = 80, p < .001)$ ,  $\chi^2/df = 3.05$ , GFI = .91, NFI = .93, TLI = .93, CFI = .95, RMSEA = .08(90% CI = .07 ~ .09)으로 양호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안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경로모형 분석 결과는 표 4와 그림 3에 제시하였다.

부모의 자기자비와 자기냉담, 결혼만족, 온정·수용 양육행동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이르는 경로를 연구 문제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자기자비( $\beta = .18, p < .01$ )와 자기냉담( $\beta = .33, p < .001$ )은 아동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의 자기자비와 자기냉담이 결혼만족을 통해 아동의 문제행동에 이르는 경로에서 부모의 자기자비( $\beta = .44, p < .001$ )와 자기냉담( $\beta = -.59, p < .001$ )은 모두 결혼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결혼만족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

다. 즉, 부모의 자기자비 성향이 높을수록 결혼생활을 더 만족스럽게 느꼈고 부모의 자기냉담 성향이 높을수록 결혼생활에서 느끼는 만족감은 낮아졌으나, 부모가 지각하는 결혼만족도는 아동의 행동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셋째, 부모의 자기자비와 자기냉담이 온정·수용 양육행동을 통해 아동의 문제행동에 이르는 경로에서 부모의 자기자비만 온정·수용 양육행동( $\beta = .17, p < .01$ )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했으며, 온정수용 양육행동은 아동의 문제행동( $\beta = -.37, p < .001$ )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다시 말해 부모가 자기자비 성향이 높을수록 온정·수용 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였으며 자녀는 문제행동을 덜 보였다.

넷째, 부모의 자기자비와 자기냉담이 결혼만족과 온정·수용 양육행동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경로에서 부모의 자기자비, 자기냉담은 결혼만족에, 결혼만족은 온정·수용 양육행동에( $\beta = .62, p < .001$ ), 온정·수용 양육행동은 아동의 문제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자기자비가 높은 부모는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았으며, 이는 아동을 향한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행동의 증가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자녀의 문제행동이 덜 나타났다. 반면, 자기냉담이 높은

부모는 결혼생활을 불만족스럽게 지각하는 정도가 높았고 이는 아동을 향한 온정적이고 수용 양육행동의 감소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자녀의 문제행동 발생이 높았다.

## 매개효과 검증

자기자비와 자기냉담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간접경로는 자기자비와 자기냉담이 결혼만족을 통해 아동의 문제행동으로 가는 경로와 온정·수용 양육행동을 통해 아동의 문제행동으로 가는 경로, 결혼만족과 온정·수용 양육행동을 순차적으로 거쳐 가는 경로 3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구조방정식의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AMOS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은 개별 간접효과를 제공하지 않아 전체 간접효과만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모형 적합도와 모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팬텀변인을 설정하여 개별 간접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배병렬, 2017).

팬텀변인을 사용하여 개별 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우선 부모의 자기자비가 결혼만족을 통해 아동의 문제행동에 이르는 경로에서의 개별 간접효과는 부모의 자기자비와 자기냉담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그 다음, 부모의 자기자비가 온정·수용 양육행동을 통해 아동의 문제행동에 이르는 경로에서는 부모의 자기자비만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냈다( $B = -.05, p < .05$ ). 마지막으로, 부모의 자기자비가 결혼만족과 온정·수용 양육행동을 순차적으로 거쳐 아동의 문제행동에 이르는 경로에서의 개별 간접효과는 부모의 자기자비( $B = -.07, p < .01$ ), 자기냉담( $B = .08, p < .01$ )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 논 의

본 연구는 부모의 자기자비가 결혼만족과 온정·수용 양육행동을 통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자비를 단일요인이 아닌 자기자비와 자기냉담 두개의 요인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최신 연구 동향에 따라, 자기자비를 자기자비와 자기냉담으로 분리해 각각의 개별적인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또한 변인 간 구조적 관계를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찾기 위해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함께 설정하였고 변인 간 직·간접 경로를 모두 연결한 경쟁모형이 관계를 설명하기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경쟁모형을 채택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자기자비, 자기냉담 모두 아동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부모의 자기자비 혹은 자기냉담이 높을수록 자녀의 문제행동이 더 많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앞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자기냉담이 높은 부모는 아동의 문제행동을 더 야기할 것이라는 예측과는 일치하였으나 자기자비가 높은 부모는 아동의 문제행동을 예방할 것이라는 예측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다만 본 연구에서 부모의 자기자비와 아동의 문제행동 간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고, 부모의 자기자비와 아동의 문제행동 간 관계를 탐색한 선행연구도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각도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두 변인 사이의 매커니즘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부모의 자기자비와 자기냉담이 결혼만족을 통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다. 즉, 부모의 자기자비가 높을수록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던 반면, 부모의 자기냉담이 높을수록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지만 이러한 경향은 아동의 문제행동 발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부모의 자기자비가 부부관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는 유사하지만(박미화, 2019; 변지영, 양혜정, 2018; 양영미, 박경, 2016; 최닷음, 최한나, 2019), 결혼만족도가 높은 부부일수록 자녀들이 문제행동을 덜 보인다는 선행연구들과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였다(김소향, 조준오, 2018; 민미희 등, 2016; Buehler & Gerard, 2002).

이러한 결과를 부분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자기자비가 높은 부모는 자신 뿐 만 아니라 배우자의 불만족스러운 특성에 대해서도 자비롭게 수용할 수 있고, 부부 갈등이 발생했을 때에도 자신의 잘못을 쉽게 인정하고 사과하며 배우자의 실수도 포용하여 원만하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반면, 자기냉담이 높은 부모는 자신에게 적용하는 엄격한 기준을 배우자에게도 적용해 배우자의 단점과 실수에 대해 자비롭지 못하며, 갈등이 발생했을 때에도 갈등 상황 자체에 압도되어 배우자에게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부관계가 악화되기 쉽다(변지영, 양혜정, 2018).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자기자비가 높은 부모는 자신의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더 높게 느낄 수 있었던 반면, 자기냉담이 높은 부모는 부부관계가 악화되기 쉬워 결혼생활에 대해서도 불만족스럽게 지각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 반면 부부의 결혼만족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부부관계와 그에 따른 부모의 심리상태 그 자체보다는 부부관계로 인해 발생한 심리상태가 양육에서

직접 행동으로 표현될 때 아동의 문제행동에 가시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부모의 결혼만족이 아동의 문제행동과 연결되는 경로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색하는 것이 의미있을 것이다.

셋째, 부모의 자기자비와 자기냉담이 온정·수용 양육행동을 통해 아동의 문제행동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자기자비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부모의 자기자비가 높을수록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였으며, 아동의 문제행동의 감소로 이어졌다. 이는 자기자비가 높은 어머니가 마음챙김 양육을 통해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자녀에게 민주적 양육을 제공함으로써 자녀의 정서 조절능력을 증가시켰다는 김형연(2021)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부모의 개인 내적 특성이 자녀 양육에 미치는 영향을 시사한다. 자기자비가 높은 부모는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자비를 통해 부정적 정서성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낮춰 결과적으로 자녀와의 관계에서 더 온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신에게 자비로운 부모는 타인에게도 수용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어 자녀의 어려운 특성에 대해서도 자비를 가지고 온전히 수용할 수 있다.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을 심리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으며, 부모로부터 충분히 애정을 느끼고 수용받은 자녀는 굳이 문제행동을 통해 부모의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없어 문제행동의 발생이 감소하게 된다.

반면 부모의 자기냉담이 온정·수용 양육행동을 통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자기자비와 자기냉담의 심리

적 영향 경로가 다를 수 있다는 박한솔(2021)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자기자비는 긍정적 정서를 통해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주는 반면, 자기냉담은 부정적 정서를 통해 영향을 미친다는 박한솔의 연구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부모의 자기냉담이 높을수록 양육장면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덜 느끼기 보단 부정적인 정서를 더 쉽게 느껴 통제적이거나 방임적인 양육행동과 같은 양상의 양육행동이 증가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유추해볼 수 있다. 부모의 자기자비와 양육행동 간 관계를 살펴본 Psychogiou et al.(2016)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자기자비가 낮을수록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더 고통스러워하거나, 자녀에게 비난적 코멘트를 더 빈번하게 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자기비난이 높은 부모일수록 자녀에 대해 차갑고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더 많이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Amitay et al., 2008).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부모의 자기냉담과 아동의 문제행동 사이의 경로에서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행동보다는 거부적이고 통제적인 양육이 관련될 것이라는 추론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추후에는 부모의 자기냉담이 다른 차원의 양육행동을 통해서도 아동의 문제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넷째, 부모의 자기자비, 자기냉담과 아동의 문제행동 사이의 관계에서 결혼만족과 온정·수용 양육행동의 순차적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이론적 틀로 선정한 가족체계 이론과 Belsky(1984)의 양육행동 결정요인 모델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부모 내면의 자기자비는 배우자의 특성을 온전히 수용하고, 결혼생활 중 갈등상황에서도 적응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부모가 결혼생활에서 느끼는 만족감을 증가시킨다. 부모가 결혼생활에 만족할수록 긍정정서가

증가하므로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부모가 온정적으로 행동하고 자녀의 특성을 온전히 수용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부모가 보이는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행동은 아동과의 관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아동의 문제행동의 발생을 감소시켰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반면, 부모가 자기에게 엄격하고 자비롭지 못할수록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에 대해서도 만족감을 덜 느끼며, 결혼생활에서 오는 부정적 감정은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행동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아동의 문제행동을 유발하였다. 특히 자기냉담은 온정·수용 양육행동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결혼만족을 매개로 하였을 때에는 온정·수용 양육행동과의 경로가 유의해져 결과적으로 아동의 문제행동을 증가시켰다. 이는 자기자비와 다르게 부모의 자기냉담이 온정·수용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가 자신의 결혼생활에 대해 내리는 주관적인 느낌과 평가가 중요한 과정변인으로 작용한다고 추론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모의 자기자비를 다룰 때 결혼만족과 온정·수용 양육행동 간 전이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자기냉담의 효과 또한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부모의 개인 내적 특성으로의 자기자비를 자기자비와 자기냉담으로 구분하여 아동의 문제행동과 가정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학령기 후기 아동의 문제행동 개입에 있어 부모의 개인적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였다. 특히 자기자비는 성인 이후에도 훈련을 통해 변화할 수 있는 요인으로 여겨지기 때문에(이은지, 서영석, 2014), 아동의 문제행동과 그 이면의 가족 문제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부모의 심리적 특성을 다루고 변화시킴으로써 가정 문제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나아가 건강 가정을

형성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이론적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다른 대상으로 일반화시키기 어렵다. 현재 부모의 자기자비와 결혼만족, 양육행동, 아동의 문제행동 간 관계를 모두 아울러 본 연구는 부족하므로, 다양한 연령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후속연구들을 통해 다른 연령의 아동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확장하여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부모의 자기자비가 온정·수용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만 살펴보았기 때문에 통제적 양육과 같이 다른 차원의 양육행동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지 못하였다. 또한 자기냉담의 경우 온정·수용 양육행동에 직접적으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부모의 자기자비와 자기냉담이 다른 차원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으로써 자기냉담과 양육행동의 관계를 더 명확하게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부모의 결혼만족을 측정한 척도의 하위요인 중 ‘자녀양육 갈등’의 명칭이 결과를 해석할 때 독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었다. 해당 척도의 명칭은 권정혜, 채규만이 1999년 Snyder(1979)의 ‘결혼만족도 검사(MSI)’를 한국 실정에 맞게 번안하면서 처음 명명하였다. 그러나 ‘자녀양육 갈등’이라는 명칭과는 상반되게, 실제로 해당 척도가 측정하는 내용은 부모가 결혼생활 중 자녀양육 부분에서 느끼는 만족감 이다보니 독자가 연구결과를 잘못 해석할 여지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해당 척도의 명칭을 측정 내용에 맞게 변경하거나, 혹은 역산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면 더 독자 친화적인 연

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 참고문헌

- 강란해 (2000). 아버지 역할수행의 결정요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6), 15-28.
- 강란해 (2001).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 - 취업모 가정과 비취업모 가정의 비교 -. **한국일본교육학연구**, 5(1), 189-201.
- 권영옥, 이정덕 (1997).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척도(CPCI)의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18(1), 65-80.
- 김문정 (2003).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미희 (2021). **자기자비와 타인자비의 관계: 긍정정서와 인지적 공감의 이중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선희, 김경연 (2001). 학령기 아동의 행동문제 유형에 따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인과모형. **아동학회지**, 22(1), 19-34.
- 김소향, 조준오 (2018). 유아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자녀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 정신건강(불안, 우울, 충동성, 공격성)의 다중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6), 675-700.
- 김의진 (2014). **중년부부의 부부갈등, 여가경험, 결**

- 혼만족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청구논문.
- 김한나, 이미선. (2013). 어머니의 우울과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관계가 자녀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어머니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아동복지연구**, 11(3), 73-92.
- 김형연 (2021). **어머니의 개인적 특성 및 양육이 학령 초기 아동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혜원, 유성경 (2017). 부모의 성인애착과 양육행동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 결혼불만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1), 199-226.
- 민미희, 김정민, 김지현 (2016). 부부관계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및 긍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2(6), 103-121.
- 박금진 (2019). **학령기 아동의 기질 및 자녀의 부정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유형에 따른 문제행동의 차이.**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미화 (2019). **기혼남녀가 지각한 원가족 건강성과 부부 적응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와 갈등대처방식의 순차적 매개효과.** 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영애 (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주연 (2020). **어머니의 우울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수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주희 (2000).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목표, 양육행동 및 또래관계 관리전략.**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철웅 (2003). **부부관계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한솔, 김은하, 신희천 (2020). 한국판 자기자비척도의 요인구조 검증: 자기자비와 자기냉담의 차별적 효과. **상담학연구**, 21(3), 227- 251.
- 박혜선 (2016). **부모-자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배병렬 (2017). **Amos 24 구조방정식모델링.** 서울도서출판: 청람.
- 백혜정, 황혜정 (2006). 초등학생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변인 및 자아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9(3), 1-27.
- 변지영, 양혜정 (2018). 자기자비와 부부관계의 질: 부부 조망수용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매개변인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26(1), 1-22.
- 서고운 (2017). 부모의 결혼만족도가 아동의 또래 놀이 행동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8(6), 79-91.
- 송수진 (2015).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원가족 경험 및 결혼만족도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양영미 (2016).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서울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양영미, 박경 (2016).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자기자비의 조절효과. **한국심리치료학회지**, 8(1), 43-57.
- 오경자, 이해련 (1990). 한국아동 청소년의 문제행동 증후군 연구 1.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9(1), 33-55.
- 윤미선 (2016). **아버지의 결혼만족도 및 양육참여도**

- 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관계.**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소현 (2021).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이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원영 (1983). **어머니의 자녀교육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이화 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은지, 서영석 (2014). 불안전 성인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과 대인관계문제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2), 413-441.
- 이은정, 김영희, 반평자 (2022).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에 대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열린부모교육연구, 14**(2), 41-62.
- 이호준 (2018). **자기자비가 타인자비에 미치는 영향: 긍정정서와 사회적 유대감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소희 (2015). **유아의 연령에 따른 문제행동과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및 양육태도와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애련 (2015). **아버지의 결혼만족도, 직업만족도 및 양육참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임희수 (2013).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관련변인들 간의 구조관계분석. **유아교육학논집, 17**(2), 241-263.
- 정문자, 정혜정, 이선훈, 전영주 (2018). **가족치료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채영문, 곽수진 (2017). 아버지의 결혼만족도와 자녀양육행동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웰니스학회지, 12**(1), 1-13.
- 최닷옴, 최한나 (2019). 부부의 자기자비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과 및 상대방 효과. **심리유형과 인간발달(구 한국심리유형학회지), 20**(2), 19-35.
- 최아현 (2020). **어머니가 지각한 결혼만족도와 문지기 역할이 부모공동양육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1), 161-177.
- 홍지희, 김보영(2021). 부모의 부부갈등이 중년기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자비와 부부갈등대처방식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3**(3), 1349-1374.
- 홍현정, 신나나 (2024).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아동기 모애착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도의 매개효과. **Human Ecology Research(HER), 62**(2), 337-349.
- Amani, R., & Khosroshahi, A. S. (2020). The structural model of marital quality based on secure attachment style through the mediating role of self-compassion, resilience, and perspective-taking.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49*(1), 16-36.  
<https://doi.org/10.1080/01926187.2020.1813653>
- Anthony, M. V. G.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satisfaction and family cohesion among evangelicals* (Doctoral dissertation,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http://hdl.handle.net/10392/452>

- Bandura, A. (1965). Vicarious processes: A case of no-trial learning.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 1-55. [https://doi.org/10.1016/s0065-2601\(08\)60102-1](https://doi.org/10.1016/s0065-2601(08)60102-1)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1), 83-96. <https://doi.org/10.2307/1129836>
- Bertoni, A., & Bodenmann, G. (2010). Satisfied and dissatisfied couples: Positive and negative dimensions, conflict styles, and relationships with family of origin. *European Psychologist*, 15(3), 175-184. <https://doi.org/10.1027/1016-9040/a000015>
- Bögels, S. M., Lehtonen, A., & Restifo, K. (2010). Mindful parenting in mental health care. *Mindfulness*, 1(2), 107-120. <https://doi.org/10.1007/s12671-010-0014-5>
- Brenner, R. E., Heath, P. J., Vogel, D. L., & Credé, M. (2017). Two is more valid than one: Examining the factor structure of the Self-Compassion Scale(SC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4(6), 696. <https://doi.org/10.1037/cou0000211>
- Buehler, C., & Gerard, J. M. (2002). Marital conflict, ineffective parenting, and children's and adolescents' mal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1), 78-92. <https://doi.org/10.1111/j.1741-3737.2002.00078.x>
- Costa, J., Marôco, J., Pinto Gouveia, J., Ferreira, C., & Castilho, P. (2016). Validation of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Self-Compassion Scale. Testing the factorial validity and factorial invariance of the measure among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nxiety disorder, eating disorder and general populations.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23(5), 460-468. <https://doi.org/10.1002/cpp.1974>
- Cohen, E., & Naaman, E. R. (2023). Linking Mothers' Self-Compassion and Parenting Feelings to Their Child's Behavior Problems. *Mindfulness*, 14(1), 79-90. <https://doi.org/10.1007/s12671-022-02043-x>
- Darling, N., & Steinberg, L. (1993). Parenting style as context: an integrative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13(3), 487-496. <https://doi.org/10.1037/0033-2909.113.3.487>
- DiGiulio, J. F. (1988). Self-acceptance: A factor in the adoption process. *Child Welfare*, 67(5), 423-429.
- Edwards, C. (2017). *Parental attachment and child adjustment: The role of parenting stress and self-compassion* (Doctoral dissertation, Ball State University)
- Erel, O., & Burman, B. (1995). Interrelatedness of marital relations and parent-child relations: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18(1), 108. <https://doi.org/10.1037/0033-2909.118.1.108>

- Feldman, S. S., Wentzel, K. R., Weinberger, D. A., & Munson, J. A. (1990). Marital satisfaction of parents of preadolescent boys and its relationship to family and child functioning.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4*(2), 213-234.  
<https://doi.org/10.1037/0893-3200.4.2.213>
- Fishman, E. A., & Meyers, S. A. (2000). Marital satisfaction and child adjustment: Direct and mediated pathways. *Contemporary Family Therapy, 22*(4), 437-452.  
<https://doi.org/10.1023/A:1007848901640>
- George, D., & Mallery, P. (2016). *Descriptive statistics. In IBM SPSS statistics 23 step by step* (14th ed.). New York, NY: Routledge.  
<https://doi.org/10.4324/9781315545899-13>
- Gouveia, M. J., Carona, C., Canavarro, M. C., & Moreira, H. (2016). Self-compassion and dispositional mindfulness are associated with parenting styles and parenting stress: The mediating role of mindful parenting. *Mindfulness, 7*(3), 700-712.  
<https://doi.org/10.1007/s12671-016-0507-y>
- Kachadourian, L. K., Fincham, F. D., & Davila, J. (2005). Attitudinal Ambivalence, Rumination, and Forgiveness of Partner transgressions in marriag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3), 334-342.  
<https://doi.org/10.1177/0146167204271595>
- Krishnakumar, A., & Buehler, C. (2000). Interparental Conflict and Parenting Behaviors: A Meta Analytic Review. *Family relations, 49*(1), 25-44.  
<https://doi.org/10.1111/j.1741-3729.2000.00025.x>
- Gerard, J. M., Krishnakumar, A., & Buehler, C. (2006). Marital conflict, parent-child relations, and youth maladjustment: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of spillover effects. *Journal of Family Issues, 27*(7), 951-975.  
<https://doi.org/10.1177/0192513x05286020>
- Greenlee, J. L., Piro-Gambetti, B., Putney, J., Papp, L. M., & Hartley, S. L. (2022). Marital satisfaction, parenting styles, and child outcomes in families of autistic children. *Family Process, 61*(2), 941-961.  
<https://doi.org/10.1111/famp.12708>
- López, A., Sanderman, R., Smink, A., Zhang, Y., van Sonderen, E., Ranchor, A., & Schroevers, M. J. (2015). A Reconsideration of the Self-Compassion Scale's Total Score: Self-Compassion versus Self-Criticism. *PloS one, 10*(7), e0132940.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132940>
- Margolin, G., Christensen, A., & John, R. S. (1996). The continuance and spillover of everyday tensions in distressed and nondistressed famili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0*, 304-321.

- <https://doi.org/10.1037/0893-3200.10.3.304>  
Moilanen, K. L., Shaw, D. S., & Maxwell, K. L. (2010). Developmental cascades: Externalizing, internalizing, and academic competence from middle childhood to early adolescenc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2(3), 635-653.  
<https://doi.org/10.1017/s0954579410000337>  
Moreira, H., Canavarro, M.C. (2018). The Association Between Self-Critical Rumination and Parenting Stress: The Mediating Role of Mindful Parenting.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7, 2265-2275.  
<https://doi.org/10.1007/s10826-018-1072-x>  
Neff, K. D. (2003a).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cale to measure self-compassion. *Self and Identity*, 2(3), 223-250.  
<https://doi.org/10.1080/15298860309027>  
Neff, K. D. (2003b). Self-compassion: An alternative conceptualization of a healthy attitude toward oneself. *Self and Identity*, 2(2), 85-101.  
<https://doi.org/10.1080/15298860309032>  
Neff, K. D., & Beretvas, S. N. (2013). The role of self-compassion in romantic relationships. *Self and Identity*, 12(1), 78-98.  
<https://doi.org/10.1080/15298868.2011.639548>  
Neff, K. D., & Faso, D. J. (2015). Self-compassion and well-being in parents of children with autism. *Mindfulness*, 6(4), 938-947.  
<https://doi.org/10.1007/s12671-014-0359-2>  
Pedro, M. F., Ribeiro, T., & Shelton, K. H. (2012). Marital satisfaction and partners' parenting practices: The mediating role of co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6(4), 509.  
<https://doi.org/10.1037/a0029121>  
Psychogiou, L., Legge, K., Parry, E., Mann, J., Nath, S., Ford, T., & Kuyken, W. (2016). Self-compassion and parenting in mothers and fathers with depression. *Mindfulness*, 7(4), 896-908.  
<https://doi.org/10.1007/s12671-016-0528-6>  
Rogers, Carl R. (1951), *On Becoming a Person*. Houghton Mifflin. Boston: MA.  
Schaefer, E. S. (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Th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2), 226-235.  
Sirois, F. M., Bögels, S., & Emerson, L. M. (2019). Self-compassion Improves Parental Well-being in Response to Challenging Parenting Events. *The Journal of psychology*, 153(3), 327-341.  
<https://doi.org/10.1080/00223980.2018.1523123>  
Snyder, D. K. (1979).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4), 813-823.  
<https://doi.org/10.2307/351481>

- Steiger, J. H. (1990). Structural Model Evaluation and Modification: An Interval Estimation Approach.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25(2), 173-180.  
[https://doi.org/10.1207/s15327906mbr2502\\_4](https://doi.org/10.1207/s15327906mbr2502_4)
- Trentacosta, C. J., Hyde, L. W., Shaw, D. S., Dishion, T. J., Gardner, F., & Wilson, M. (2008). The relations among cumulative risk, parenting, and behavior problems during early childhood.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9(11), 1211-1219.  
<https://doi.org/10.1111/j.1469-7610.2008.01941.x>
- Wang, D., Xie, R., Ding, W., Yuan, Z., Kayani, S., & Li, W. (2023). Bidirectional longitudinal relationships between parents' marital satisfaction, parenting stress, and self compassion in China. *Family process*, 62(2), 835-850.  
<https://doi.org/10.1111/famp.12785>
- Wang, J., & Wang, X. (2019).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lications Using Mplus*. UK: John Wiley & Sons.

## Effects of Parents' Self-Compassion and Self-Coldness on Children's Problematic Behavior: The Sequential Mediation of Marital Satisfaction and Warm and Accepting Parenting Behavior

Seonpyo Hong<sup>1</sup>

Saeyoung Han<sup>2</sup>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al & Intervention, Ewha Womans University/ Master's Degree<sup>1</sup>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al & Intervention,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sup>2</sup>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s of parents' self-compassion and self-coldness on the problematic behavior of school-age children through marital satisfaction, warm and accepting parenting behavior. Data were collected from 336 married men and women with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grades 4 to 6.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mediating effects of both parents' self-compassion and self-coldness on children's problematic behavior through marital satisfaction were not significant. Second, only parents' self-compassion had a significant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ir children's problematic behavior through warm and accepting parenting behaviors. Thir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self-compassion, self-coldness and children's problematic behavior,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 of marital satisfaction and warm and accepting parenting behaviors was significant. This study is meaningful because it examined the overall influence of parents' personal characteristics on the family by distinguishing between self-coldness and self-compassion. The study's results can serve as a theoretical basis for parental education programs incorporating self-compassion.

*Keywords : Parents' Self-Compassion, Self-Coldness, Marital Satisfaction, Warm and Acceptance Parenting Behaviors, Problematic behavior of School-Age Children, Children's Development*